6일 오후 영국 테이트 모던에서 이용우 대표와 김선정 감독 등이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와 전시 방향, 참여 작가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영국 런던=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계미술 중심에 선 '광주비엔날레'

英 테이트모던 행사…현지 미술계 인사들과 대화

참여작가 소개·'라운드테이블' 주제로 담론 펼쳐

#. 터키 현대미술 작가 쉐넬 오즈멘(Sener Ozmen) 엘칸 오즈겐(Erkan Ozgen)은 지난 2009년 '테이트 모던으로 가는 길(The Road of Tate Modern)'이라는 비디오작품을 국내 한 전시에서 선보였다. 작품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말과 당나귀를 타고 여러 산을 넘는 등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힘들게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무더위 속에서 테이트 모던을 찾아가기 위한 힘든 여정은 글로벌 사회임에도 불구, 영국·미국 중심의 현대 미술계 주류 시장에 아시아를 비롯, 제3세계 국가들의 진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지를 보여주고 있다.

6일 오후 6시30분(현지 시각)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마르코 다니엘(Marko Daniel) 테이트 모던 부관장이 스타오디토리엄 강당에 올랐다.

그는 "영국 테이트 모던은 지금껏 서양에 집중된 국제 아트 개념을 바꾸는 사업을 하기 위해 광주비엔날레를 영국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고 행사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용우 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와 김선정 감독 등은 무대 중앙에 올라 100여 명의 미술 관계자들과 관람객 앞에서 제 9회 비엔날레의 주제와 전시 내용을 소개하면서 2시간 가량 대화를 진행했다. 전 세계 현대미술계가 주목하는 현장에서 광주비엔날레가 역사상 최초로 소개되는 순간이었다.

광주비엔날레가 6일 오후 6시30분(현지 시각)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 스타오디토리엄에서 '라운드테이블에 관한 대담'(A Roundtable on ROUNDTABLE)을 주제로 한 제 9회 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테이트모던'은 지난 1981년 폐기된 영국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리모델링해 개조해서 만든 현대미술관으로, 21세기 세계문화예술계가 주목하는 영국 현대미술의 명소다.

굴뚝이 솟아 있는 발전소가 웅장한 미술관으로 탈바꿈되면서 개관 이후 단번에 관광 명소로 떠올랐고 도발적이기까지 한 영국미술의 실험정신과 붐을 반영한 데미안 허스트 등 작가들의 활약도 한몫을 하면서 현대미술의 메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김선정 감독과 낸시 아다자냐, 마미 카타오카, 캐롤 잉화루 등 공동감독들은 이날 지난 20여년간 진행됐던 비엔날레에 관한 관심과 다뤄졌던 담론들을 비롯해 제 9회 비엔날레 참여작가들도 소개했다. 서도호 작가와 마이클 주, 길초실 등 한국 작가와 들라인 르 바(Delaine Le Bas),틴틴 울리아(Tintin Wulia) 등 전 세계 다양한 참여 작가들이 소개됐다.

2012 리버풀 비엔날레에서 국제 전시 큐레이터로 참여했던 비평가 로렌조 푸지(Lorenzo Fusi)는 행사 진행을 맡아 영국의 유일한 비엔날레인 리버풀 비엔날레를 소개하면서 광주비엔날레와의 연결고리도 설명했다. 참가자들의 관심도 대단했다.

감독들의 설명이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비엔날레의 주제와 6명의 감독 결정 배경, 비엔날레 전시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전시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용우 대표이사는 이날 "광주비엔날레는 더이상 아시아만의 비엔날레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엔날레로 성장했다"면서 "광주비엔날레가 다양한 문화담론들이 형성되고 논의되는 계기가 되는 행사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런던=김지을기자 dok2000@

영국 테이트모던 미술관

몸짓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지역 춤 작가전' 10일 남구문예회관

지역 무용인들의 축제 '제6회 지역 춤 작가전'이 오는 10일 오후 5시 광주남구문예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젊은 무용인들의 모임인 광주현대춤연구회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무대에 오른다.

광주현대무용단은 정민아씨의 안무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을 그린 'The Relation'을 선보이며 신민경 발레단은 희극발레 '코펠리아' 3막중 군무, '호두까기 인형' 2막중 군무 등 사람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발레를 무대에 올린다.

또 공진희씨가 이끄는 태한국무용단은 심현정씨의 안무로 피어나고 떨어지는 꽃잎과 인생사를 엮은 '꽃농'을 공연하며 비상현대무용단은 박종임씨가 안무한 '관계…12345'를 선사한다.

그밖에 광주로얄발레단은 박선희·오윤환씨가 공동안무한 'Rain'을 공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비상현대무용단 '관계…12345'

전통·현대 음악의 어울림

원음회 20번째 공연 10일 문예회관

송원여고 출신 음악전공자들의 모임인 원음회(회장 최은녕)의 20번째 음악회가 오는 10일 오후 6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최영경씨의 해설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성악, 가야금 병창, 피아노, 난타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무대다.

나영아·문미정씨 등이 플루트 앙상블로 '사운드 오브 뮤직'을 선사하며 문명자·이순란씨 등이 '호남가'와 관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를 들려준다.

또 소프라노 박희현씨는 푸치니의 '제비' 중 '도레타의 아름다운 꿈'을, 피아노 트리오(남선영·김수연·진채리)가 피아졸라의 '여름'과 '망각'을 선사한다.

최은녕

그밖에 해금과 25현 가야금, 피아노, 타악이 어우러진 '엉겅퀴의 노래'(김옥기 작곡)가 공연되며 바리톤 최진학씨가 특별출연, 김동환의 '그리움 마음'과 비제의 '카르멘', 모차르트의 '돈 지오반니' 중 아리아를 들려준다.

원음회에는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전공 회원 8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

한옥의 뜨락, 그 달빛 아래서

'달빛음악회' 8일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한옥의 아름다운 뜨락, 그 달빛 아래서 음악을 듣다.

광주시 서구가 주최하는 '초여름밤 전통한옥 달빛음악회'가 8일 오후 7시30분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에서 열린다.

임서현씨의 '청산도' 시낭송으로 문을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아시아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현악 4중주팀의 '라 쿰파르시타', 성악가 박수연·김제선씨가 들려주는 '푸니쿨라 푸니쿨라', 강혜경·이상미씨가 선사하는 가야금 병창 '뱃노래' 등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그밖에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가 '밤의 무지개' 등 국악가요를 선사한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먹을거리를 함께 나누며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도 마련한다. 문의 062-654-4300. /김미은기자 mekim@

아시아 춤·음악 공동조사

오늘 서울서 국제워크숍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1차 아시아 전통 춤·음악 공동조사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삼양 삼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장관 보좌관, 판야 루웅루앙(방콕 돈부리대 음대학장, 엔도 수안다 인도네시아 예술교육대 총장 등 아시아 각 나라의 전통춤(14개국), 전통 음악(9개국)의 전문가 총 23명이 참여한다.

이번 워크숍은 신화, 전설, 민담 등 이야기가 담겨있는 아시아의 전통 춤과 음악 자원을 공동으로 조사·수집한 후 상호 공유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전날인 7일에는 오는 2014년 완공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구, 공예창작촌 입주 작가 모집

광주시 남구는 오는 14일까지 남구 대촌동 빛고을공예창작촌에 입주할 공예작가 7명을 공개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최근 3년간 작품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작품 활동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작가는 52.8㎡(16평) 규모의 공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 장작 가마를 활용한 작품 활동은 물론 남구청으로부터 각종 마케팅, 판촉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구는 오는 8일에는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19일 최종 지원 작가를 발표한다. 문의 062-650-7578. /김경인기자 kki@